

철학사

55 칸트의 윤리학

(아서 홈즈 박사, 휘튼 대학교)

오늘은 칸트의 윤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 제1부 말미에서, 즉 그가 교리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즉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순수이성에 대한 제1비판과 실천이성에 대한 제2비판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제1비판은 인식 능력, 제2비판은 의지 능력, 그리고 판단력에 대한 제3비판은 감정 능력을 다룬다고들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덕적 의지, 도덕적 책임, 도덕적 의무 등의 개념이 도입되는 것은 바로 제2비판입니다.

자, 몇 가지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칸트는 도덕적 실재론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 객관적인 도덕적 자질이 존재하며, 옳고 그름, 미덕과 악덕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도덕적 구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도덕적 실재론자이자 객관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그의 유명한 정언명령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의 도덕적 실재론은 18세기 후반 다른 사상가들의 관심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8세기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혁명, 특히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 물리학은 당연히 기계론적 과학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적론이 결여된 과학, 즉 자연의 모든 것이 모방하려 애쓰는 포괄적인 이상으로서의 선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과학 말입니다.

그 결과, 과학 혁명 직후와 혁명 기간 동안 윤리적 문제에 접근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에게서는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초점을 맞춘 초기 형태의 공리주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토머스 홉스라는 인물이 그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인간의 선의나 자비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결정론자이자 무조건적인 쾌락주의자로 여겼습니다.

그건 18세기 사람들이 흙스를 해석한 방식이었죠. 우리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읽히지 않아요. 그의 생각 속에는 자비로운 마음도 담겨 있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18세기에는 그를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흙스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18세기 철학자들 사이에서 도덕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덕적 실재론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간 움직임 중 하나가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였죠. 기억하시겠지만요. 또 다른 예로는 존 로크가 자연법, 즉 인간의 법을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 근거시키려 했던 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던 책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로크는 케임브리지 플라톤 학파의 거장이었던 랄프 커드워스의 딸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 에 대한 거부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 하지만 동시에 그는 윤리의 객관적 근거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도덕 감각 철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던 버틀러, 애덤 스미스, 샤프츠베리, 허치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츠베리는 로크가 가정교사로 고용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크는 훗날 도덕 감각 철학을 발전시킨 샤프츠베리 의 가정교사였던 셈입니다 .

샤프츠베리는 로크의 윤리학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훨씬 더 명확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덕 감각이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흙은 도덕 감각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 10년 정도 사이에 발전된 비교적 최근의 해석 중 하나는 데이비드 흙이 도덕 감각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윤리적 실재론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가 윤리적 주관주의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도덕적 감정, 즉 도덕적 정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인식하는 표상일 뿐입니다. 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흙이 덕과 악덕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몇 가지 내용에 근거하는데, 이는 마치 그가 개인, 즉 인간의 객관적인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덕과 악덕이 객관적인 속성이라면, 그 속성들 사이에는 객관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적어도 도덕적 속성의 지위에 있어서는 도덕적 객관성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실재론 문제는 18세기 사상가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실재론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인과적 결정론을 내세운 기계론적 과학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함의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학은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그에 내재된 주관주의적 함의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윤리학을 저술한 것입니다.

그의 윤리학에 대한 접근 방식은 형이상학에 대한 접근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형이상학에서 인식 능력을 탐구할 때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선형적 구조, 즉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며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주관적 구조입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그는 우리가 도덕적 사고에 적용하는 정신적 구조, 주관적 구조, 또는 원칙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사고 구조가 형식이나 범주처럼 순전히 주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구조에 의무감이나 도덕률에 대한 존중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객관적인 도덕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는 과학과 형이상학에서 사용되는 형식과 범주는 순전히 주관적이라고 결론짓지만,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범주는 객관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도덕적 의무, 옳고 그름의 객관적인 차이, 객관적인 도덕률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점에서 도덕적 실재론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이해 하려면, 윤리적 판단의 종합적 선형적 본질을 다시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윤리적 판단은 두 가지 유형의 입력이 결합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편으로는 경험적 입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선형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이 잘못이라고 말할 때, 도둑질이라는 행위에 대한 경험적 설명이 나오고, 잘못됨 또는 옳지 않음이라는 개념이 선형적 원칙으로 작용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성찰, 즉 도덕적 인식에 선형적 원칙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선형적 원칙 말입니다.

암묵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형적 원칙은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자, 이 선집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실려 있습니다. 선집에 있는 칸트의 마지막 부분이죠. 선집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천이성 비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도덕의 형이상학적 기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입문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선의 . 선의. 핵심은 의도입니다.

동기에 관하여. 성격에 관하여. 개인의 내면적 성향에 관하여.

그리고 오직 내면의 도덕적 성향에서 비롯된 선택만이 조건 없이 선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타고난 성향은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자기만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체가 선 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성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감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성향은 경험적인 대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향과 의무감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의무감은 선형적 원칙에 근거합니다 . 성향은 경험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자질은 전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가명제와 정언명제를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명제와 정언명제의 차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가상적인 경우는 애매하죠. 이걸 원한다면 저렇게 하세요. 일종의 가상적인 도덕적 삼단논법이 될 겁니다.

이걸 원한다면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가령 명령은 목적, 결과, 영향, 성향, 욕구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가령 명령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반면에 정언명령은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요 ? 정언명령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알려줍니다. 그는 처음에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무조건적인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네, 의무에 대한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선의이지, 단순히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칸트는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는 사람이 잘못된 이유로 의무를 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차가 뒤따라온다고 해서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행동에는 도덕적 미덕이 전혀 없습니다.

알 겠죠? 하지만 의무에 대한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개념을 더욱 자세히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정도까지만 놓고 보면, 그는 그것을 상식적인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상 길거리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즉시 묘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언명령을 명확히 표현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를 보다 철학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는데, 그는 이를 세 가지 형태로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는 흔히 보편화 원칙이라고 불립니다.

인간 존중의 원칙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적인 의지, 즉 의지의 자율성입니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보편성. 즉, 언제나 격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률이란 도덕적 규칙입니다.

할 수 있는 격언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작용한다. 즉,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격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발전해 왔다.

하나는 그것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편화 가능성이죠. 다른 하나는, 더 일반적인 해석인데, 논리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의지라는 말은 자기 모순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기모순적인 법칙, 즉 자멸적인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면서 특정 날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실상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행동하는 근거가 되는 원칙을 보편화한다면, 누구나 원한다면 감각을 거스르지 않고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약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아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보편적 법칙을 통해 약속이라는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는 자기모순적인 법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언명령은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공식의 문제점은 긍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부정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준인 것이죠. 하지만 칸트는 오늘날 '인간 존중'으로 알려진 두 번째 공식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여기에는 보편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항상 목적으로 대하십시오.

지금 그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저를 이용해서 학점을 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당신을 이용해서 먹고사는 거야. 네, 그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람 자체를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고요? 글썄요, 그들은 늘 그렇듯 도덕적 의지를 가진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 즉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존중받는 것을 보편화하는 것이죠.

인간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 현대 의료 윤리나 기업 윤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개발되었는데, 현재는 폐교되었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제가 제 삶의 계획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저도 상대방의 삶의 계획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왜 제가 제 삶의 계획에 대한 존중을 요구할까요? 제가 이성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일반적 일관성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장합니다. 일반적 일관성 원칙, 줄여서 PGC라고 합니다.

인간 존중의 보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언명령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식이며,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을 단순히 이성적인 존재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개념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이라는 개념에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완전한 윤리입니다.

정언명령의 세 번째 버전은 자율적인 의지와 타율적인 의지를 구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타율적인 의지란 타인에 의해 지배되는 의지를 말한다. 즉, 타율성이다.

타인의 지배를 받는다. 자율성은 당연히 자기 통치를 의미한다. 자율적인 의지란 스스로를 다스리는 의지이다.

요점은 기본적으로 정언명령은 당신이 자신의 선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동은 자유롭고 자기 결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타인의 욕망과 기대에 휘둘리거나 군중에 휩쓸리거나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에 사로잡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요. 사실 그는 이런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UCLA에서 가르치는 로버트 아담스는 신의 의지라고 부르는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의 지배를 받는 의지, 즉 신의 의지입니다.

칸트가 정말로 그것을 허용했는지, 혹은 의도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신의 법칙이었으니, 칸트도 그 방향을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자율적인 의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된 의도는 단순히 성향을 따르거나 외부 영향에 굴복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자발적인 의무감에 입각한 행동 사이의 차이를 다시금 강조하는 데 있다. 이것이 그의 정언명령이다. 그는 인간 존중과 관련하여 자신 이 ' 목적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다시 말해,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한다면, 사회가 목적의 왕국,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왕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인권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는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이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직접 비롯된 것입니다. 칸트는 『영구 평화』라는 소책자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성적인 사람들은 선의를 바탕으로 서로 계약을 맺고, 계약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계약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즉, 인간 존중은 목적의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살펴볼 그의 종교 서적에서 그는 이 목적의 왕국을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데이비드가 뭘 하려는지 보면 꽤 간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비드 말인가요? 네. 그는... 아시다시피, 조건 없이 좋은 것은 오직 선의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뿐입니다. 체포 영장을 든 사람이 뒤에 서 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서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밤에 시내로 나가자고 유혹해서 의무를 회피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거기 가만히 앉아서 칸트를 읽으세요.

예를 들어,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제 욕망을 바꿔주셔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은 당신의 욕망이 바뀌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보세요. 그의 요점은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정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도덕적 자아, 아니 도덕적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 주장하는 바는, 의지가 의무감에서 비롯된 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 즉 이성과 의무감에 의해 인도될 때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개인이 선의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기계론적 과학의 인과관계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경험적 수준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것을 생각 없이 먹거나, 생각 없이 반응하고 해야 할 일을 중단하고, 그냥 테우기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성적인 인간보다는 동물에 더 가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그는 감각적인 차원에서 욕망, 성향, 감정, 느낌만을 좇으며 살아간다면 자유롭지 못하며,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는 인간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좋은 것은 오직 호의뿐입니다. 아, 아시다시피 그는 여기서 비판을 받았죠. 물론 그는 프로이센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왜 비판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많은 영국 작가들이 그에게서 프로이센적인 면을 이야기하곤 하죠. 그는 미혼이었고요.

네. 굉장히 절제력 있는 독신남이었죠. 이웃들은 그가 대학에 걸어가는 시간에 맞춰 아침에 시계를 맞출 정도였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데이비드 씨의 질문에도 깔려 있는 생각은,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고 신이 주신 욕망을 무시하는 것이 완전히 인간적이지 않다는 느낌 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구원적으로 변형된 욕망일지도 모르죠. 네. 음, 그를 변호하자면, 그는 우리에게 행복을 향한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일 겁니다.

그는 행복을 향한 이러한 갈망이 신이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행복과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팎에서 행복에 대한 욕구를 자동으로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들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피트? 네, 피트가 우리가 항상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반대로 행동하며, 도덕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에서 말하는 타락의 개념을 자신의 생각에 접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 노력이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그의 배경은 루터교 경건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이 점에 대해 그를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루터교 경건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키르케고르가 보기에 인간 본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다른 누군가 말이죠. 네, 아시다시피, 그 질문은 그가 단순히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의무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상충되는 의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의무감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쉽고, 더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를 몇 가지 문제에 휘말리게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무 A와 의무 B가 충돌하고 둘 다 사람에게 대한 의무라면, 관련된 사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어떤 의무가 더 중요한지 묻는다면, 그는 '구명정 윤리'라는 관점에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구명정 윤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두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왜 그를 절대주의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도덕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도덕 규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절대주의자로 여겨지곤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거짓말에 대해 절대주의자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짓말이란 없다고 생각하죠. 당신의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1942년 암스테르담에서 게슈타포가 다락방에 숨겨둔 유대인 소녀를 찾으러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내용이었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제 생각에는 적어도 칸트의 철학을 해석해 보면, 그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년 전 방문 철학자 프로그램으로 우리 캠퍼스에 크리스틴 코스가드라는 칸트학자가 오셨었는데, 당시 시카고 대학교에 계셨고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에 계십니다.

그녀는 강의 중 하나에서 칸트가 그런 의미에서 절대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진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거죠. 제 생각에 요점은, 네, 당신은 그게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리학자들이 당신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고전적인 방식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무의 위계질서를 따릅니다.

인간 존중과 관련하여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을 때 암시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 다른 하나는 도덕 규칙의 예외를 규율하는 규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도덕률에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온갖 단서가 붙은 훨씬 더 긴 도덕률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죠. 거짓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겁니다.

구약 성서 학자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그 계명은 문맥 속에서 읽을 때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조건부 규칙이죠. 그래서 칸트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칸트 전문가들이 명성을 얻는 방식은 바로 칸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 자신의 의무감이 무엇인지 아냐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감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면 , 당신은 자신이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판단하느냐는 질문이겠죠? 정언명령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이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는 방법입니다 .

당신은 보편화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인간 에 대한 존중에서 행동하시겠습니까 ? 당신은 자율적인 의지에서 행동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아는 방식이고, 당신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그는 당신에게 규칙 목록을 잔뜩 주지 않습니다.

음, 윤리에 대한 규칙서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 오늘날 의료윤리와 생명윤리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다른 건 없나요? 아니요, 도덕적 사고란 가장 기본적인 도덕 원칙들이 우리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 규칙을 정립하려고 할 때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도덕 규칙은 어떻게 정립할까요? 그 해답은 정언 명령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언명령에 근거해서요 .

여기 있는 이 선형적 원칙, 즉 정언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이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윤리적 논의를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례, 지역 규칙 등이 그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도덕적 책임 영역에 적용되는 규칙. 전반적인 원칙. 즉, 모든 종류의 책임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

도덕적 삶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들이 근거하는 토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학적 토대입니다.

혹은 어떤 철학적 근거일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칸트의 경우, 그 원칙은 정언명령입니다.

정언 명령.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규칙은 정언 명령에 근거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 내가 거짓말로 당신을 속이고, 기만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

그래서 규칙은 그것에 근거하고, 그 규칙이 해당 사례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규칙을 확인합니다. 특정한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 명확한 도덕적 가르침이 있고, 사회에는 특정한 도덕적 기준이 있으며, 전문가 윤리 강령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규칙을 만들거나 규칙 차원에서 도덕적 의무 간의 충돌을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전체 원칙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윤리적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배경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BB, 즉 배경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일과 경제 활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료 윤리 문제를 다룰 때는 의료의 목적에 대한 당신의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장 해야 한다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고통의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오래 머무르는 것.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끝없이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에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범주 자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 A4 범주들은 형이상학 만큼 객관적 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칸트를 도덕적 실재론자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정언 명령을 범주라고 부르지 마세요. 정언 명령은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정언 명령을 표현 하는 세 가지 방법 입니다.

정언명령은 그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지요? 그가 이 구분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구분을 인식하는 그의 방식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도덕적으로 그른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언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형이상학에서는 현상론을 믿으면서 도덕적 실재론을 주장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아, 하지만 그는 『비판적 1』 말미에 그렇게 말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 비평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가 교리적 믿음과 구별되는 도덕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기억하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경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경험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마음속에서, 욕망과 성향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경험 그 자체는 시공간 세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과 형이상학의 형식과 범주가 우리의 도덕적 사고에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해 되시죠? 바로 우리의 도덕적 삶, 인간 정신의 내면에서 현실의 본질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상주의와 낭만주의가 칸트의 결과물 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 즉, 과학의 외적 세계를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학의 내적 세계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게 바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이었죠, 그렇죠? 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관념론, 낭만주의 등에 미친 칸트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윤리학 분야에서 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낭만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종종 윤리적 이상주의자로 불립니다. 다시 말해, 궁극적 실재를 윤리적 관점, 즉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윤리적 이상주의자인 것이죠.

칸트의 신은 도덕적 신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APRI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결정론적인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아니요, 아니요 . 초월적 방법을 통해 도덕적 경험을 분석하고 탐구하면서 발견하는 정언 명령이 모든 사람이 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유의지가 있다면 원칙을 저버릴 수도 있죠.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밀턴의 『실낙원』에서 악마가 뭐라고 했더라? "악이여, 나의 선이 되어라."

보세요, 저게 바로 악한 의지입니다. 선한 의지가 아니라 악한 의지죠. 만약 그가 결정론자가 아니었다면, 즉 자유의지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당신 말이 맞았을 겁니다.

당신은 결정론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당신의 결정을 결정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 원칙은 이성이 의지를 인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아시잖아요? 네,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변은 이런 종류의 도덕적 경험은 형이상학에 적용되는 형식과

범주와는 무관하다는 것뿐입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귀결을 살펴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자유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의지의 자유는 도덕적 의무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도덕이란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덕이 의미를 가지려면 의무감에 따라 행동할 자유, 즉 의지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유의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도덕적 경험, 즉 도덕적 현상학에 대한 설명에서 자유의지가 도출되는 결과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요? 만약 그가 의무에 대해 옳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암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첫 번째가 일종의 논리적 귀결이라면, 두 번째는 윤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추가적인 전제들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 즉 선의의 실현은 인생에서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는 도덕적 완벽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이 주신 자연스러운 행복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욕망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동안 결코 온전히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덕적 성장이 지속되고 행복으로 보상받는 내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영혼 불멸은 실질적인 필연성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말은 실천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천 이성은 도덕적 사고입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사고가 의미를 가지려면 도덕적 추구, 즉 선을 향한 추구, 선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내세가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내세가 존재하려면 개인의 덕성에 비례하는 행복을 보장해 줄 도덕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천 이성에는 두 가지 도덕적으로 필연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은 신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종교 서적에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부분을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의식과 신의 개념,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적 태도, 즉 신에 대한 태도에서 그가 설명한 것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도덕적 의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성이 정언 명령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법을 제정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 상관관계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입법자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과 경외심, 존경심, 그리고 순종을 포함하는 적절한 종교적 태도가 있습니다. 도덕적 의식은 또한 행복을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종종 이성이 제정하는 것과 같등을 일으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축복하시는 선한 공급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태도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도덕적 양심, 더 정확히는 도덕적 의식에는 양심의 경험, 즉 양심 의 가책을 느낄 때 무언가가 찌릿하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관관계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공정한 재판관에 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존경심, 법에 대한 두려움 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가정 해야 하는 신이 바로 이런 종류의 신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신에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일까요? 아니면 신에 대한 개념과 종교적 삶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 경험, 우리의 도덕적 경험을 심리적으로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후자는 물론 윤리적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종교 해석에서 취하는 길이고, 전자는 신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해석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긴 했지만 보다 전통적인 종교적 접근 방식에서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19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의 몇몇 흐름이 발전해 나왔습니다.

만약 당신의 신학이 단순히 윤리학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계시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새로운 신학적 방법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한 흐름이 칸트의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기독교에 대해 글을 쓰면 비난받고, 가르치거나 출판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했다. 거짓말은 언제나 잘못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된다.

게다가 종교 서적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는 도덕적 완벽함의 이상을 상징합니다.

위대한 본보기.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무감에 따라 행동한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속죄의 모범 이론으로 알려지게 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모범 이론이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최고의 도덕적 모범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당연히 정통 기독교 전통은 칸트에게 반대할 것이다. 적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칸트가 더 많은 것을 의도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의 저서 제목이 종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성이라는 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중요한 점은 계몽주의가 종교의 근본 진리를 증명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칸트는 그러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 입니다.

그런 종류의 형이상학적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의 기본 진리를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해 되시죠? 도덕률 제정자 등을 포함하는 결과적인 체계의 전반적인 합리적 일관성 때문에 그러한 가정이 그토록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

그러므로 믿음을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칸트는 사물의 전체적인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정합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